

직업군인 배우자의 성장기 학대경험이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과 부부갈등의 매개효과 검증

Influence of Childhood Abuse Experience on Perpetration of Child Abuse among the Military Personnel's Spouses with the Mediation Effect of Family Conflict

서정열*, 최장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Jeong-Yeol Seo(sjy3279@hanmail.net)*, Jang-Won Choi(jwchoi@bufs.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직업군인 배우자의 성장기 학대피해경험이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성장기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결혼 후 자녀학대로 이어지는 경로에 있어서 가정폭력피해 경험의 매개경로를 파악하여 자녀학대 가해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15년 하반기 육군 3개 부대, 해군 2개부대, 공군 2개부대를 선정하여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답한 직업군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설문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최종분석에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기혼 직업군인 배우자 238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직업군인 배우자의 자녀학대 가해률의 경우, 정서학대가 51.4%, 신체학대가 28.9%, 방임이 3.8%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직업군인 배우자의 성장기 학대경험과 자녀학대 간에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장기 학대경험이 부부갈등을 매개로 자녀학대로 이어지는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직업군인 배우자의 가정 내 불화와 자녀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군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 중심어 : | 직업군인 배우자 | 성장기 학대경험 | 부부갈등 | 자녀학대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domestic violence experience of military's spouses and its impacts on child abuse and child's growth retardation. Then, the social work interventions were identified to curtail domestic violence experience and its impact on family including their spouses and children. The primary data was collected in 2015 by interviewing two hundred thirty eight spouses of military personnels, the military service 3 unit, the navy service 2 unit, the airforce service 2 unit. The result showed that children of the military families experienced emotional abuse (51.4%), physical abuse (28.9%) and neglect (3.8%). And an association between childhood experience of abuse and perpetration of child abuse was found with a perfect mediation effect of family conflict. Based on the results, social welfare intervention program was suggested to reduce domestic violence among military families in South Korea.

■ keyword : | Military's Spouse | Child Abuse | Childhood Abuse Experience | Family Conflict |

* 이 논문은 2018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8년 04월 13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5월 02일

수정일자 : 2018년 05월 02일

교신저자 : 최장원, e-mail : jwchoi@bufs.ac.kr

I.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 형태는 전통적 가족 구조에서 핵가족, 그리고 다양한 가족형태가 생겨나고 있다. 그에 따라 새로운 가족구조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 8살 된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하고, 10살 된 딸에게 소금밥만 먹여 소금 중독으로 숨지게 한 비정한 어머니들의 모습¹은 가족의 구조가 부정적으로 기능할 때 폭력의 상황에 대한 대응이 취약한 아동의 사회적 안정망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다. 2015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집계된 아동학대 신고 접수건수는 총 29,671건으로 2012년에 비해 약 54.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1]. 또한 이렇게 신고 되어 개입된 사례는 2001년 20건이 재 신고 되었으나 2016년에는 3,095건이 재신고 되어 아동에 대한 학대가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학대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아동학대의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학대가 단순히 아동기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후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아동은 또래집단에 어려움과 그에 따른 소외감을 경험하고, 학습 부진등과 같이 학업 부적응을 경험한다[2][3]. 또한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에 어려움과 여러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가지기도 한다[4-6].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최근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학대를 받으면서 자란 아동이 성인이 되어 자녀를 가해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폭력의 세대 간 전이(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라고 불리며 국내·외 다수의 연구에서 학대 가해의 영향요인으로 학대 피해에 대한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7-11].

한편, 학대 피해 경험은 단순히 심리, 정서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가정폭력 피해 가능성과 같은 부부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12][13]. 실제로 이은주(2004)[14]는 미국에서 거주중인

한인 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아동기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대상은 성인으로 성장 후 신체 및 심리적 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신체 학대 경험으로 긍정적인 갈등해결 방법을 습득할 기회를 놓쳤던 탓에 기인한다고 밝히고 있다. 가정 내에서 경험하게 되는 학대 피해는 사회적 폭력 경험보다 더욱 심각한 손상을 가져 올 수 있다. 전 생애를 거쳐 반복적인 가정 내 폭력을 경험하는 이들은 우울과 무기력, 낮은 자아 존중감을 보이고 있는데 [15][16], 특히 성장기의 학대 경험은 이들로 하여금 무기력을 학습하게 만드는 기제가 되며, 이에 갈등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갈등중재라는 적응적 기제의 발휘보다는 무기력이라는 기제로 인해 가정 내의 불화로써 부부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이는 학습된 무기력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Miller & Seligman(1975)[17]는 인간이 통제 할 수 없는 혐오적사건에 직면하게 되면 자신의 반응으로 미래를 변화시킬 수 없고, 그 결과를 통제 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성장기에 경험하는 학대피해는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18]을 고려할 때 이들이 경험하는 무기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과거력은 신체 및 심리적 폭력에 취약성이 높으며, 결혼 후 배우자와의 갈등상황 발생시, 무기력을 더욱 가중시킴에 따라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로 비화되며 이에 양육행동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19][20].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여성의 가정 내 폭력 경험과 자녀학대, 이 두 문제의 사회적 접근이 과연 여성들의 권리와 복지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학계와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도외시되고 있는 직업군인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성장기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이 현재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갈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가정 내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 짓는 것이 아닌 여성과 아동을 동일한 피해자로 판단하고 통합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동아일보 2013년 11월 22일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살인혐의 기소”

II. 이론적 배경

1. 모의 자녀학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형성되면서 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학대를 당한 아동의 심리, 정서적 문제에 대한 연구 [2][3][21]와 학대 가해 부모의 특성에 관한 연구 [22][23]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에서 부와 모 중 가정 내에서 주로 아동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양육을 담당하는 밀접한 관계를 지닌 여성의 아동학대 가해에 미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로서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6년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24]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평생 동안 어머니에 의한 자녀학대 발생률은 32.1%로 나타난 반면 아버지는 22.4%로² 나타났다. 이처럼 남성과 여성의 경우 공격적 성향과 사회성, 그리고 아동과 함께 보내는 시간 등 여러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관하여 부와 모를 분리하여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군인가정의 경우는 일반가정과 다른 특수성이 존재함에 따라 어머니와 자녀의 역동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군 간부 10,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군인복지실태조사(2013) [25]에 따르면 기혼군인의 15.8%가 주말부부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일반가정보다 약 10배나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군인가정 내에서 어머니는 비단 전통적인 어머니로서의 역할기대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까지 부여받게 되는데, 이로써 한 개인에게 이중의 부담이 작용하여 일반가정과는 상이한 원인을 가진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군인가족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로서 가계의 경제적 문제가 꼽히는데 [25], 이는 전속으로 인한 잦은 이주로 인해 주택 장만에의 어려움, 그리고 어머니의 안정적인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53]. 이에 따라 군인가정의 경우, 위와 같은 특수성에 기인한 자녀양육의 부담,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은 상호 연쇄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책임이 주로 어머니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일반가정보다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스트레스는 자녀양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수반한 강압적 양육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는데 [27], 실제로 아동학대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 [10][28-31]에서는 이와 같은 디스트레스가 아동학대 가해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실제로 자녀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갈등적 부부관계가 보고되고 있다 [32][33]. 이에 단순히 자녀와 보내는 시간의 경우 이 군인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욱 길다는 특성뿐만 아니라 군인가정이라는 특수성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인해 어머니의 역할부담도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군인가정 내의 자녀학대 발생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폭력의 세대간 전이에서 부부갈등의 매개효과

성장기에 경험한 학대피해는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심리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7-9][20][34]. 이는 발달적 관점에 근거한 적기성의 원칙 즉, 적절한 시기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후의 발달에도 연쇄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른 결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하여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로부터 학대는 청소년기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감, 학습부진 등과 같은 학교부적응에 문제와 연관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3-6][21][24]. 또한 이 역시도 연쇄적인 발달의 저하를 가져와 성인기 대인관계 형성에 저해를 가져오고, 심리내적인 우울과 공격성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12][13][20], 이러한 문제는 결혼 이후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구체화되기도 한다 [10].

성장기 학대의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자신의 아동을 학대하는 가해자가 되는 이른바 폭력의 세대간 전이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와 관련하여 상반되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세대간 전이를 지지하는 결과 즉, 학대의 피해자가 학대의 가해자가 되는 결과의 인과성을 지지하고 있으나 [10][35-37], 일부 연구 [20][38]에서는 이러한 직접적

2 백분율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 총 1,813명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추정된 수치임

인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두 관계에서의 매개요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Kemp(2001)는 아동기의 학대 피해경험은 세대간 전이를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이고, 과거의 피해자가 현재의 가해자가 되는 것은 상황적 조건 즉 매개변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아동기 학대 피해경험이 있는 성인들은 아동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으며, 이에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게끔 만드는 촉발요인으로서의 매개변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인으로서 바로 부부갈등[10]은 세대간 전이의 연결고리를 짓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두 변인간의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군인가정은 일반가정보다 부부갈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39]. 이른바 '군인가족증후군(Military family syndrome)'이라 불리는 현상으로서 권위적인 아버지, 우울한 어머니, 그리고 폭력피해에 취약한 자녀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51]. 이는 전속으로 인한 상대적으로 잦은 이사, 당직근무 및 훈련으로 인한 상대적으로 긴 근무시간, 전반적으로 위험한 근무여건 등으로 인해 일반가정과는 다른 특수한 생활양식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여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배우자의 입장에서 전속으로 인한 빈번한 이사는 단순히 지역의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교육문제도 수반되어 있고, 안정적인 취업상태에도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새로운 지역에서의 새로운 적응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역사회로부터의 지지자원 및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진행한 군인가족 실태조사(2011)[41]에 따르면 직업군인의 배우자의 사회적 관계를 묻는 문항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51.9%로 나타나 2명 중 1명 이상이 관계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의 갈등에서 발생한 디스트레스는 자녀의 양육방식에도 전이되기 쉽다[27][31][42], 아동학대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28-30].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로서 Buehler & Gerard (2002)[43]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 사이에서 갈등이 존재하는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강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자녀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는 경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은주(2004)[14]는 미국에서 거주중인 한인 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적 학대경험이 성장 후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신체적 상해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밝히며, 이는 신체적 학대 경험으로 긍정적인 갈등해결 방법을 배우고 능력을 발달시킬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학습이론에 기초하여 설명이 가능한데, 부모는 자녀들에게 일차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그 성장기에 학대피해로 인한 긍정적 양육방식에 대한 학습의 결여가 성인기에 자신의 자녀에게 학대의 양식으로서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44]. 이는 성장기 학대를 받은 부모들이 아동을 존중받을 인격체로 인식하고 올바른 훈육방법에 대하여 배울 기회가 없었음에 기인하며, 부부갈등으로 인한 갈등의 증폭으로 자신의 자녀에게 학대를 수반한 양육태도를 보이게 됨을 뜻한다. 또한 사회문화적인 특성으로서 엄격한 훈육방식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적 훈육양상이 기형적으로 더해져 학대를 일으킬 위험성을 높게 만든다. 이에 성장기 학대경험은 배우자와의 갈등의 원인이 되며, 이와 동시에 부부갈등은 폭력피해가 세대간 전이를 일으키는 촉매제가 됨을 예측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18세 미만 자녀를 둔 직업군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성장기 학대경험이 자녀학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폭력피해경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성장기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직접적으로 자녀학대로 이어지는 경로와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경험을 매개로 자녀학대에 이어지는 경로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 <연구 가설 1> 직업군인 배우자의 성장기 학대경험은 자녀학대 가해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 가설 2> 직업군인 배우자의 성장기 학대경험은 부부갈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 가설 3> 직업군인 배우자의 부부갈등경험은 자녀학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 가설 4> 직업군인 배우자의 성장기 학대경험은 부부갈등을 매개로 하여 자녀학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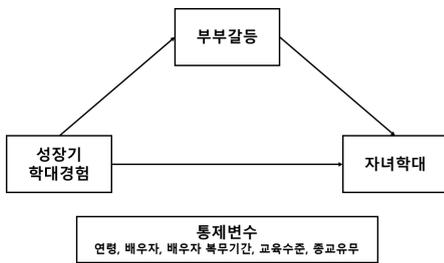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육군 3개부대, 해군 2개부대, 공군 2개부대에 근무하는 직업군인 가족들중에서 자발적으로 설문응답한 직업군 배우자 중 자녀 나이가 18세 미만인 직업군인 배우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2015년 10월 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배우자 군별 분류는 육군 112명, 해군 65명, 공군 61명으로 총 238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3.1 독립변수: 성장기 학대경험

본 연구에서 성장기 아동학대 경험은 ‘성장기 동안 부모로부터 언어 학대, 신체 학대, 방임을 받은 경험’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Straus 등(1998)의 PCCTS(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의 4문항과 Straus et al.(1996)[45]의 CTS2(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의 2문항을 사용하였다. 언어학대는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등 심한 말을 하였다”의 1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신체학대는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때렸다”,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물건(골프채, 몽둥이, 칼 등)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다치게 했다”의 3문항을 사용하였다. 방임은 “식사를 챙겨주지 않거나, 아플 때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밤늦게 혼자 있게 하였다”의 2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의 범주는 없음(0), 있음(1)의 총 2개 범주이다. 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0.697로 나타났다.

3.2 종속변수: 자녀학대

자녀학대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다. 자녀학대는 크게 ‘정서학대, 신체학대, 성 학대, 방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성학대의 경우 다른 요인들과는 다르게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크다[4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 학대 제외한 ‘지난 1년간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의 행동’으로 자녀학대를 정의 하고자 한다. 자녀학대를 측정하기 위해서 Straus et al.(1998)의 PCCTS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47] 중에서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방임의 14문항을 사용하였다. 정서적 폭력에는 “자녀를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자녀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악담을 하는 행위”의 2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신체적 폭력에는 “허리띠(벨트), 막대기 등으로 자녀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손바닥으로 자녀의 뺨이나 머리를 때리는 행위”, “자녀를 잡고 던지거나 넘어뜨리는 행위”, “주먹이나 발로 자녀를 세게 때리는 행위”, “자녀를 사정없이 때리는 행위”, “자녀의 목을 조르는 행위”, “고의적으로 자녀에게 화상을 입히는 행위”, “칼, 가위 등으로 자녀를 위협하는 행위”의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방임은 “자녀의 식사를 제때에 챙겨주지 않는 행위”, “치료가 필요할 때 자녀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 행위”,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자녀를 돌보지 않는 행위”, “밤늦게 자녀를 혼자 있게 하는 행위”의 4문항이다. 본 척도의 조사대상 기간은 지난 1년

간이며 응답의 범주는 없음(0), 있음(1)의 총 2개 범주이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α)는 0.712로 나타났다.

3.3 매개변수: 부부갈등

본 연구에서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Markman, Stanley & Blumberg (1994) [48]의 부부갈등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단일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은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고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다”, “남편은 내 생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남편은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남편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내 진짜 생각과 느낌 혹은 우리 관계에 대한 요구를 남편에게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다른 사람과 사귀거나 재혼하면 어떻까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우리는 다투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심한 것으로 해석한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α)는 0.863로 나타났다.

3.4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기본적으로 인구나사회학적 변인으로서 연령 및 군 관련 변인으로서 배우자의 신분과 복무기간을 투입하였다. 또한 가족과정모델(family process model)에 의하여 가족의 구조적인 특성을 구성하여 자녀학대에 유의미한 변인으로 구분되는 보호자의 교육수준, 생활수준을 투입하였다. 그리고 종교에 따른 보호자의 양육태도를 연구한 선행연구[49]를 근거로 종교유무를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과 오류 검토 작업을 진행한 후 SPSS 22.0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직업군인 배우자의 성장기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과 이 과정에 있어서의 직업군인 배우

자에 의한 폭력피해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통계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검증을 위한 기초분석으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성장기 학대경험 실태, 배우자 폭력피해 실태, 자녀학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직업군인 배우자의 성장기 학대경험과 자녀학대와의 영향관계를 파악하였고, Aroian 검증을 통해서 성장기 학대경험과 자녀학대 사이의 영향관계에서 배우자 폭력피해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부부갈등이 성장기 학대경험과 자녀학대와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세 가지 단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독립변수인 성장기 학대경험이 부부갈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으면, 다음 단계에서는 독립변수항에 성장기 학대경험과 배우자 폭력피해를 독립변수항에 동시에 투입하여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앞선 두 단계에서 나온 변수들의 비표준화 계수를 통해 Aroian 검증방법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배우자 폭력피해의 매개효과 검증 단계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 1. 매개효과 검증 단계

단계	주요 내용
1단계	성장기 학대경험이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검증 (독립변수 → 종속변수)
2단계	성장기 학대경험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검증 (독립변수 → 매개변수)
3단계	성장기 학대경험과 부부갈등이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검증(독립변수, 매개변수 → 종속변수)
4단계	매개효과 검증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직업군인이 갖는 일반적 특성인 배우자 신분, 연령, 배우자 복무기간, 교육수준, 종교유무에 대한 사항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배우자 신분의 경우, 장교가 77명(32.5%), 부사

관이 161명(67.6%)으로 부사관의 비율이 장교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연령은 30대가 58.0%(13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40대(22.7%), 50대 이상(12.2%), 20대(7.1%)의 순서로 빈도가 낮아졌다. 배우자 복무기간은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4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25.2%, '20년 이상 25년 미만'이 10.1%, '25년 이상'이 13.4%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전문대졸이 4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대졸은 33.2%, 고졸은 14.7%, 대학원 이상 고학력자는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중에서 전문대 이상을 졸업한 학력자가 전체의 85% 이상이였다. 종교유무는 종교를 갖고 있는 경우가 72.3%, 종교가 없는 경우가 27.7%로 나타나 상당수가 종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238)

변 수	응 답 범 주	N (%)
배우자 신분	장교	77 (32.4)
	부사관	161 (67.6)
연 령	20대	17 (7.1)
	30대	143 (60.1)
	40대	54 (22.7)
	50대 이상	24 (10.1)
배우자 복무기간	5년 미만	1 (0.4)
	5년 이상~10년 미만	22 (9.2)
	10년 이상~15년 미만	99 (41.6)
	15년 이상~20년 미만	60 (25.2)
	20년 이상~25년 미만	24 (10.1)
	25년 이상	32 (13.4)
교 육 수 준	고졸	35 (14.7)
	전문대졸	108 (45.4)
	대졸	79 (33.2)
	대학원이상	16 (6.7)
종 교 유 무	있음	172 (72.3)
	없음	66 (27.7)

2. 주요변수의 실태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실태를 [표 3]에서 살펴 보았다. 종속 변수인 자녀학대 가해행동의 척도의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 1년간이며 응답의 범주는 없음(0), 있음(1)의 총 2개 범주이다. 문항별 실태를 살펴보면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욕설을 퍼붓거나 악담을 했다'등과 같은 정서적 폭력의 실태는 51.4%로 아동 두 명중 한명이 정서적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의 경우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를 때렸다', '자녀를 잡고 던지거나 넘어뜨렸다'와 같은 경한폭력과 '목을 졸랐다' '고의적으로 화상을 입혔다'와 같이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중한 폭력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이 결과 경한 폭력은 전체의 23.3%, 중한 폭력은 5.6%를 보여 결코 적지 않은 아동이 중한 폭력을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자녀학대 가해 실태 (N=238)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43	.5	00	1.00
분 류	없 음	있 음	합 계	
1)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54.2%	45.8%	100%	
2) 욕설을 퍼붓거나 악담을 했다	75.6%	24.4%	100%	
정서적 폭력			51.4%	
3) 허리띠(벨트), 막대기 등으로 엉덩이를 때렸다	84.5%	15.5%	100%	
4)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를 때렸다	81.4%	18.6%	100%	
5) 자녀를 잡고 던지거나 넘어뜨렸다	93.2%	6.8%	100%	
신체적 폭력 - 경한 폭력			23.3%	
6) 주먹이나 발로 세계 때렸다	95.2%	4.8%	100%	
7) 사정없이 때렸다	95.3%	4.7%	100%	
8) 목을 졸랐다	99.8%	0.2%	100%	
9) 고의적으로 화상을 입혔다	100%	0%	100%	
10) 칼, 가위 등으로 위협했다	99.7%	0.3%	100%	
신체적 폭력 - 중한 폭력			5.6%	
11) 자녀의 식사를 제때에 잘 챙겨주지 않았다	96.7%	3.3%	100%	
12) 치료가 필요할 때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99.3%	0.7%	100%	
13)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자녀를 돌보지 않았다	99.8%	0.2%	100%	
14) 밤늦게 혼자 있게 하였다.	98.8%	1.2%	100%	
방임			3.8%	

또한 방임의 경우 '자녀의 식사를 잘 챙겨주지 않았다', '치료가 필요할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밤늦게 혼자 있게 하였다' 등의 항목을 통해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전체의 3.8%의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이 중에

서도 '자녀의 식사를 잘 챙겨주지 않았다'(3.3%), '밤늦게 혼자 있게 하였다'(1.2%)등의 물리적 방임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4]는 독립변수인 성장기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피해경험의 실태를 나타낸 표이다. 조사대상자들의 성장기 학대경험을 분석한 결과 언어학대가 36.6%, 신체학대가 13.0%, 방임이 24.8%로 언어학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1]에서 밝힌 아동학대사례 유형(방임학대 15.6%, 정서학대 19.2%, 신체학대 14.5%)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부부갈등의 실태를 보면, 평균점수가 2.06점으로서 '그렇지 않다'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소값은 1.50, 그리고 최대값은 3.63으로 부부마다 갈등의 양상이 다르며 그 정도도 경하거나 심한 부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부부갈등 및 성장기 학대경험 실태 (N = 238)

부부갈등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2.06	0.73	1.50	3.63
성장기 학대경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1.07	1.22	0	6
학대 유형	사례수(명)	비율(%)		
언어 학대	87	36.6		
신체 학대	31	13.0		
방임	59	24.8		

3. 주요변수들 상관관계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직업군인 배우자의 자녀학대, 성장기 학대경험, 배우자 폭력피해의 변수간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6]와 같다. 먼저 독립변수인 성장기 학대경험과 종속변수인 자녀학대의 경우 정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매개 변수인 배우자 폭력피해와 성장기 학대 경험, 그리고 자녀학대와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5.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성장기 학대 경험	자녀학대	부부갈등
성장기 학대경험	1		
자녀학대	.808***	1	
부부갈등	.736***	.795***	1

4. 연구모형 검증

1) 1단계 분석: 직업군인 배우자의 성장기 학대경험이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직업군인 배우자의 성장기 학대경험이 종속변수인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전에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인(VIF)과 공차한계(Tolerance)를 살펴보았으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를 adjusted R2를 통해 확인하였다. 먼저, 분산팽창요인(VIF) 값은 모두 2미만(1.128-1.134), 공차한계(Tolerance)는 모두 .5(.698-.876)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었다(김계수, 2008; 이윤로 등, 2009). 자녀학대를 종속변수로 두고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총설명력은 16.3%(adjusted R2=.163)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결과는 다음의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다. 통제변수 중에는 배우자 신분($\beta = -.127, p < .05$)과 종교유무($\beta = -.118, p < .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연령, 배우자복무기간, 교육수준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성장기 학대

표 6. 성장기 학대경험이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구 분	Model 1				
	B	S.E.	β	t	
통제 변수	연령	.080	.009	.378	8.843***
	종교유무	-.012	.005	-.084	-2.439*
	최종학력	-.037	.008	-.160	-4.471***
	생활수준	-.051	.015	-.149	-3.292
	배우자 신분	-.016	.016	-.044	-.998
	배우자 복무기간	.016	.007	.095	2.449*
독립 변수	성장기 학대경험	.085	.006	.666	15.431***
R^2			.186		
Adj R^2			.163		
F(sig.)			6.483***		

*p<.05, **p<.01, ***p<.001

경험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자녀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군인 배우자의 성장기 학대경험이 높을수록 자녀학대의 정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2단계 분석: 직업군인 배우자의 성장기 학대경험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직업군인 배우자의 성장기 학대경험이 배우자 폭력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전에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인(VIF)과 공차한계(Tolerance)를 살펴보았으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를 adjusted R2를 통해 확인하였다. 먼저, 분산팽창요인(VIF) 값은 모두 2미만(1.013-1.165), 공차한계(Tolerance)는 모두 .5(.866-.992)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었다(김계수, 2008; 이윤로 등, 2009). 자녀학대를 종속변수로 두고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총설명력은 15.2%(adjusted R2=.152)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결과는 다음의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다. 통제변수 중에는 종교유무($\beta = -.168, p < .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배우자신분, 연령, 배우자복무기간, 교육수준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성장기 학대경험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배우자 폭력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표 7. 성장기 학대경험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구 분		Model 2			
		B	S.E.	β	t
통제 변수	연령	.310	.051	.333	6.084***
	종교유무	.082	.028	.127	2.893**
	최종학력	.063	.046	.063	1.375
	생활수준	.303	.086	.204	3.516**
	배우자 신분	.374	.090	.234	4.176***
	배우자 복무기간	.027	.038	.036	.726
독립 변수	성장기 학대경험	.197	.031	.352	6.374***
R^2				.179	
Adj R^2				.152	
F(sig.)				5.562**	

* $p < .05$, ** $p < .01$, *** $p < .001$

이러한 결과는 직업군인 배우자의 성장기 학대경험이 높을수록 배우자 폭력피해의 정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3단계 분석: 직업군인 배우자의 성장기 학대경험과 자녀학대와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의 매개효과 검증

3단계에서도 분산팽창요인(VIF) 값은 모두 2미만(1.041-1.157), 공차한계(Tolerance)는 모두 .5(.816-.943)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었다. 자녀학대를 종속변수로 두고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총설명력은 19.6%(adjusted R2=.196)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결과는 다음의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다. 통제변수 중에는 배우자 신분($\beta = -.139, p < .05$)과 종교유무($\beta = -.192, p < .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연령, 배우자복무기간, 교육수준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의 신분이 낮을수록 자녀학대는 높아지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학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배우자 폭력피해를 투입하였을 때, 독립변수인 성장기 학대경험은 자녀학대에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매개변수인 배우자 폭력피해만 자녀학대에 정적(positive)으로 유의하여($\beta = .336, p < .05$), 배우자의 폭력피해가 높아질수록 자녀학대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8. 성장기 학대경험이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구 분		Model 3			
		B	S.E.	β	t
통제 변수	연령	.049	.008	.233	6.081***
	종교유무	-.020	.004	-.139	-4.784***
	최종학력	-.043	.007	-.188	-6.270***
	생활수준	-.081	.013	-.238	-6.149
	배우자 신분	-.053	.014	-.146	-3.854
	배우자 복무기간	.014	.006	.079	2.454*
독립 변수	성장기 학대경험	.065	.005	.512	13.161***
매개 변수	부부갈등	.099	.010	.436	10.162***
R^2				.217	
Adj R^2				.196	
F(sig.)				7.618**	

* $p < .05$, ** $p < .01$, *** $p < .001$

4) 4단계 분석 : 매개효과 검증(Sobel test)

위에서 직업군인 배우자의 성장기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자녀학대와의 관계에서 배우자 폭력피해의 매개효과를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검증방법 통해 살펴본 결과 성장기 학대경험과 자녀학대와의 관계에서 배우자 폭력피해는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매개효과를 직접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 test의 검증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이 공식³을 이용한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Z_{ab} = \frac{ab}{\sqrt{b^2 SE_a^2 + a^2 SE_b^2}}$$

- a(비표준화 계수) : 성장기 학대경험 → 부부갈등
SEa : a의 표준편차
- b(비표준화 계수) : 부부갈등 → 자녀학대
SEb : b의 표준편차

표 9.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경로	a(SEa)	b(SEb)	Zab
성장기 학대경험 → 부부갈등 → 자녀학대	.286(.075)	.328(.089)	4.051**

*p < .05, ** p < .01, ***p < .001

Sobel test로 검증한 결과 Z값이 4.051로 나타나 p<.01수준에서 배우자 폭력피해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성장기 학대경험을 통제하고 배우자 폭력피해를 투입했을 때 독립변수인 성장기 학대경험과 매개변수인 배우자 폭력피해가 모두 자녀학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부부갈등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의 주된 학문적 의의는 이론적 측면에서 직업군인 배우자의 성장기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자녀

3 공식에 투입된 a(비표준화계수), SEa(a의 표준오차)는 [표 8]에서 산출된 학교폭력의 표준화계수와 표준오차를 의미하며, b(비표준화계수), SEb(b의 표준오차)는 [표 9]에서 매개변수 우울의 비표준화계수와 표준오차를 의미한다.

학대에 영향을 주는 방식에 대한 매커니즘을 보다 구체화 했다는 점이다. 즉, 기존의 성장기 학대경험과 관련한 연구가 대부분 성장기 학대경험과 자녀학대간의 직접적 연관 관계만을 다루어 온 반면, 본 연구에서는 성장기 학대경험이 많은 직업군인 배우자가 직업군인인 남편과의 부부갈등이 심할수록 자녀학대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성장기 학대경험과 자녀학대와의 영향관계에 대한 경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자녀학대의 예방과 개입 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에 대한 다양한 실천적 개입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대상자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자녀에게 정서학대를 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은 전체의 51.4%로 나타나 2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또한 경한 수준의 신체적 폭력은 23.3%, 중한 폭력은 5.6%, 그리고 방임은 3.8%로 나타나 그 실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50]에서 조사한 아동학대는 실태의 경우 부모로부터 정서학대가 경험률 29.8%, 가정에서의 체벌이 24.8%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인가정의 아동학대 실태를 보여주는 실증적 근거가 된다. 이는 군인가정의 특수성에 기인한 특성으로서,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군인가족증후군(military family syndrome)[51]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연구변인이 어머니와 자녀변인이었기 때문에 '권위적인 아버지'를 도출할 수는 없었으나, '우울한 어머니'와 '폭력에 취약한 자녀'의 모습의 전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군 관련 특성이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해석하는데 [26][51], 즉 잦은 파견근무에 따른 가정 내의 디스트레스, 잦은 당직으로 인한 불규칙한 부부생활 패턴과 같은 가정의 구조적인 문제가 기능적 문제로 가져와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것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에 군인가정의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자의 처벌적 접근뿐만 아니라 가정적 특수성에 기인한 어려움에 대한 개입의 단초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접근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군인가정의 특성상,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및 가정문제 전문상담기관을 방문

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등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아동학대를 위시한 가정의 불화로 배우자의 진급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관념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지 못해 상황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가정폭력 전문상담사가 관사 인근지역을 방문하여 맞춤형 상담을 시행하는 제도 도입 등 이들 특수집단에 맞는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지지와 같은 보호적 차원의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모형 분석 결과, 성장기 학대피해 경험이 부부갈등을 매개하여 자녀학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장기 학대경험 수준이 높은 배우자 중에서 직업군인인 남편과의 갈등이 심할수록 자녀학대의 수준이 높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직업군인 배우자들의 자녀학대에 대한 개입 시 부부갈등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는 직업군인 배우자들의 상당수가 정신적, 육체적 치료가 요구되는 부부갈등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이의 해결을 위한 개입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직업군인 배우자의 경우 부부관계적인 문제가 있어도, 관사지역 거주 이웃주민이 동일부대에 근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남편의 보직 및 진급의 지해로까지 비화될 우려로 부부갈등 및 자녀학대와 같은 가정불화를 숨기게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53]. 이는 군인 부부가 가진 대별되는 어려움으로서 민간사회 기혼자들의 경우 인근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공식적·비공식적 활동들을 통해 자녀학대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원조체계를 기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많이 실시되고 있는 ‘학부모 자조모임’이나 ‘동아리제도’ 및 지역사회 복지관의 ‘가족강화프로그램’ 등이 지지체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직업군인 배우자들에게도 이러한 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가능하고, 또한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직업군인 배우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대나 관사 인근지역에 심리상담소나 가정폭력 상담센터 등의 설치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서비스 이용자들의 신분상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직업군인 배우자들이 편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자녀학대 문제는 은폐하는 경우가 많아 사례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지역사회 복지관이나 정신건강지원센터, 의료기관, 가정폭력 전문기관 등 각각의 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아웃리치(out-reach) 프로그램을 통한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며 이에 따른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라는 사회문제의 특성상 조사대상자들이 실제와는 다르게 사실을 축소 또는 왜곡하여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자녀학대에 관련한 연구에서 발생하는 일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히 조사대상자의 배우자가 현직에 근무하는 간부 집단으로서 신분상 공인인 점 등의 이유로 은폐의 폭이 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설문조사 역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규모의 데이터 수집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특정 시점에 한하여 한정된 대상자에게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그래서 폭력의 세대간 전이를 규명하기 보다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이들의 관계를 추정하는 차원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군인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위해 패널자료 구축과 같은 종단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이에 전체 직업군인 배우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국방부 차원의 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보다 정확한 연구를 위해 직업군인 배우자의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잦은 이사, 군인아파트 거주 등과 같은 변인을 포함하여 군인 가족만의 어려움을 대별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군인가정의 특수성으로 가정형태가 크게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정과 부와는 별거하는 모와 자녀의 가정형태로 구분이 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 두 형태에 따른 폭력의 원인을 구분하여 검증하여 대별되는 특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보건복지부,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17.
- [2] 이동수, 김경숙,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만족에 관한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30권, pp.93-114, 2009.
- [3] A. H. Green, "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 in child abuse," International journal of family psychiatry, Vol.6, No.4, pp.389-403, 1985.
- [4] M. A. Lopez and R. W. Heffer, "Self-concept and soci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 victims of childhood physical abuse," Child abuse & neglect, Vol.22, No.3, pp.183-195, 1998.
- [5] B. J. Newlon and W. V. Furrow, "Using the classroom to identify children from alcoholic homes," The School Counselor, Vol.33, No.4, pp.286-291, 1986.
- [6] 조은정, 이기학,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자기효능감과 통제소재를 매개변인으로," 상담학연구, Vol.5, No.3, pp.583-595, 2004.
- [7] Y. J. Kim and D. S. Kim, "A study o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family violenc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44, No.6, pp.141-153, 2006.
- [8] 김재엽, 류원정, 오세현, 이현, "가정폭력의 세대간 전이에 관한 연구: 여성의 생애주기 상 재피해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회, 제19권, 제1호, pp.81-101, 2014.
- [9] P. C. Alexander, S. Moore, and E. R. Alexander III, "What is transmitted i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pp.657-667, 1991.
- [10] 김혜영, 석말숙, "아동기 학대적 경험이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개인특성 및 가족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제16권, 단일호, pp.71-97, 2003.
- [11] K. A. Dodge, J. E. Bates, and G. S. Pettit, "Mechanisms in the cycle of violence," Science, Vol.250, No.4988, pp.1678-1683, 1990.
- [12] G. E. Wyatt, J. Axelrod, D. Chin, J. V. Carmona, and T. B. Loeb, "Examining patterns of vulnerability to domestic violence among African American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Vol.6, No.5, pp.495-514, 2000.
- [13] C. L. Whitfield, R. F. Anda, S. R. Dube, and V. J. Felitti, "Violent childhood experiences and the risk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adults: Assessment in a large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18, No.2, pp.166-185, 2003.
- [14] 이은주, "가정폭력 행위자의 폭력행동 증단을 위한 한국적 집단개입 프로그램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4권, 단일호, pp.295-327, 2004.
- [15] 박경옥,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성인애착, 자아존중감 및 학습된 무기력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16] R. E. Heyman, and A. M. S. Slep, "Do child abuse and interparental violence lead to adulthood family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64, No.4, pp.864-870, 2002.
- [17] W. R. Miller and M. E. Seligman, "Depression and learned helplessness in ma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84, No.3, p.228, 1975.
- [18] D. Finkelhor, R. K. Ormrod, and H. A. Turner, "Poly-victimization: A neglected component in child victimization," Child abuse & neglect, Vol.31, No.1, pp.7-26, 2007.
- [19] A. A. Levendosky and S. A. Graham-Bermann, "Parenting in battered women: The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on women and their children,"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16, No.2, pp.171-192, 2001.
- [20] C. S. Widom, "The cycle of violence," Science,

- Vol.244, No.4901, pp.160-166, 1989.
- [21] R. J. Gelles and M. A. Straus, "How Violent Are American Families? Estimates from the National Family Violence Resurvey and Other Studies," In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pp.95-112, Routledge, 1990.
- [22] 박현선, 배진희, 안동현, 한지숙, "아동학대 가해 부모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아동과 권리*, 제 8권, pp.649-670, 2004.
- [23] 노충래, "아동 및 가해자의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의 심각성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13권, pp.123-154, 2002.
- [24] 여성가족부,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2017.
- [25] 국방부, *군인복지실태조사*, 2013.
- [26] 김혜원, 박영숙, "군인가족의 학령전기 자녀 양육스트레스와 가족기능," *군진간호연구*, 제27권, 제2호, pp.27-40, 2009.
- [27] K. Deater Deckard, "Parenting stress and child adjustment: Some old hypotheses and new question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Vol.5, No.3, pp.314-332, 1998.
- [28] P. Nair, M. E. Schuler, M. M. Black, L. Kettinger, and D. Harrington, "Cumulative environmental risk in substance abusing women: early intervention, parenting stress, child abuse potential and child development," *Child abuse & neglect*, Vol.27, No.9, pp.997-1017, 2003.
- [29] C. M. Rodriguez and A. J. Green, "Parenting stress and anger expression as predictors of child abuse potential," *Child Abuse & Neglect*, Vol.21, No.4, pp.367-377, 1997.
- [30] 신숙재, 정문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제19권, 제1호, pp.27-42, 1997.
- [31] 장희정, 방희정, 옥정, "체벌에 대한 신념, 양육스트레스가 체벌 행동을 매개로 아동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18권, 제3호, pp.143-163, 2005.
- [32] J. Klevens and D. J. Whitaker, "Primary prevention of child physical abuse and neglect: Gaps and promising directions," *Child maltreatment*, Vol.12, No.4, pp.364-377, 2007.
- [33] D. J. Rinehart, M. Becker, P. R. Buckley, K. Dailey, C. S. Reichardt, C. Graeber, and E. Brow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child abuse potential and current mental health symptoms," *The journal of behavioral health services & research*, Vol.32, No.2, pp.155-166, 2005.
- [34] C. D. Scher, D. R. Forde, J. R. McQuaid, and M. B. Stein, "Prevalence and demographic correlates of childhood maltreatment in an adult community sample," *Child abuse & neglect*, Vol.28, No.2, pp.167-180, 2004.
- [35] 양혜원, "아내폭력 피해 여성의 어머니역할 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가족과 문화*, 제 19권, pp.45-74, 2007.
- [36] 김예정, 김득성, "가정폭력의 세대간 전달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제44권, 제6호, pp.141-153, 2006.
- [37] N. B. Guterman and Y. Lee, "The role of fathers in risk for physical child abuse and neglect: Possible pathways and unanswered questions," *Child maltreatment*, Vol.10, No.2, pp.136-149, 2005.
- [38] M. E. Loos and P. C. Alexander, "Differential effects associated with self-reported histories of abuse and neglect in a college sampl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12, No.3, pp.340-360, 1997.
- [39] E. D. Rentz, S. L. Martin, D. A. Gibbs, M. Clinton-Sherrod, J. Hardison, and S. W. Marshall, "Family violence in the military: A review of the literature," *Trauma, Violence, & Abuse*, Vol.7, No.2, pp.93-108, 2006.

[40] 이채향, "직업군인의 직장-가정 갈등 원인과 완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군사회복지학, 제4권, 제2호, pp.5-37, 2011.

[41]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 군인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2011.

[42] 전영실, "가족특성과 아동학대 피해의 관계," 피해자학연구, 제11권, pp.53-77, 2003.

[43] C. Buehler and J. M. Gerard, "Marital conflict, ineffective parenting, and children's and adolescents' mal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64, No.1, pp.78-92, 2002.

[44] J. E. Oliver,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hild abuse: rates, research, and clinical implication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150, No.9, p.1315, 1993.

[45] M. A. Straus, S. L. Hamby, S. Boney-McCoy, and D. B. Sugarman,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Vol.17, No.3, pp.283-316, 1996.

[46] 김정미, "고교생의 공감, 또래영향력, 사회적 지지와 공격성과의 관계," 교육학연구, 제47권, pp.49-72, 2009.

[47] M. A. Straus, S. L. Hamby, D. Finkelhor, D. W. Moore, and D. Runyan, "Identification of child maltreatment with the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data for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parents," Child abuse & neglect, Vol.22, No.4, pp.249-270, 1998.

[48] H. Markman, S. Stanley, and S. L. Blumberg, "Fighting for your marriage: Positive steps for preventing divorce and preserving a lasting love," Family Court Review, Vol.36, No.1, pp.95-95, 1998.

[49] J. E. Lansford, L. Chang, K. A. Dodge, P. S. Malone, P. Oburu, K. Palmérus, and S. Tapanya, "Physical discipline and children's adjustment:

Cultural normativeness as a moderator," Child development, Vol.76, No.6, pp.1234-1246, 2005.

[5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연구V, 2015.

[51] C. Palmer, "A theory of risk and resilience factors in military families," Military Psychology, Vol.20, No.3, pp.205-217, 2008.

[52] 김정은,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긍정성과 가족의 사소통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47권, 제12호, pp.281-290, 2016.

[53] 양태호, 임왕규, "예비 전역자의 노후생활인식이 노후설계준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0호, pp.137-150, 2014.

저 자 소 개

서 정 열(Jeong-Yeol Seo)

정회원



- 1992년 2월 : 공군사관학교 졸업 (학사)
- 2004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석사)
- 2016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객원교수

<관심분야> : 군 사회복지, 가족복지, 청소년복지

최 장 원(Jang-Won Choi)

정회원



- 2008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석사)
- 2015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박사)
- 2016년 6월 ~ 현재 :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과장

<관심분야> : 노인복지, 재활복지, 청소년복지, 비영리기관